



18일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6주기 기념식에서 황교안 총리를 제외한 주요 내빈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황교안 총리, 정의화 국회의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친노 패권주의, 오만과 무능이 호남패배 불렀다”

“제1당 불구,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 지역민심 회복 위해 호남특위 설치 등 추진해야

###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광주 워크숍 토론회

“더민주의 ‘친노 패권주의’와 ‘호남의 여당’이자 제 1야당의 오만과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다.”

“원내 1당이 된 것조차 ‘블로소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 20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한 시민 토론자들은 더민주의 호남 패배 원인에 대해 다양한 쓴소리들을 쏟아냈다.

더민주를 과거 당선자 워크숍과 달리 첫 순서로 광주의 각계 시민들을 초청해 총선 결과에 대한 준엄한 평가와 호남 민심 회복 방안을 직접 듣는 ‘시민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 기사 3·4면>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를 광주와 전남, 전북 28석 중 단 3곳에서만 당선자를 내고 25곳에서 참패했다. 한 지역인사는 더민주에 대한 호남민심을 ‘쫓겨난 조강지처’에 비유했다. 당선자들은 ‘수권’만이 호남 민심을 되돌리는 길이라고 결의했다. 워크숍엔 당선자 123명 중 115명이 참석했다. 목 수술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는 워크숍 경제 특강을 실시한 뒤 상경했다.

오경미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 광주전남지회 기획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호남패배는 ‘친노패권과 호남홀대’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대가”라고 지적했다.

신신호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오만하고 무

능하다는 점에서 호남의 ‘만년 지역 여당’인 더민주나 정부여당은 똑같다”고 말했다.

탁영환 광주교육대 교수는 “총선 결과는 블로소득이다. 이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더민주에 희망이 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김동현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야당답지 않은 야당이었던 게 패배 요인”이라고 했다.

당선자들은 워크숍에 앞서 망월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우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우 대표는 윤상원 열사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을 안 하고 있지만 모두가 한번 부르자”고 요청, 함께 이 노래를 제창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원내 제1당이라는 기쁨 대신 ‘야권 심장부’인 호남을 잃어 ‘패배자의 심정’이다”고 광주 방문 소회를 밝혔다.

당선자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호남 민심’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민생을 주도하는 정책 정당’을 최우선 목표로 확정된 뒤 우선 5월의 마지막 이틀 치 첫 세비(66만5000원)를 ‘악성채권’ 소각에 내놓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전·월세 대책 등 민생 현안을 실행하는 4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호남 지원을 위한 ‘호남특위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 발행인 칼럼



이 개 호

전남도당 위원장  
(담양·장성·영광·함평)

### ‘임을 위한 행진곡’은 ‘5월 광주’의 노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제창되어야

저는 1980년 5월 광주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14일 도청 앞 빗속시위에 참여했으며, 민주화운동 기간 중 친한 친구를 잃었고 수많은 친구들이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5월 그 처참했던 기억들은 제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월 광주의 노래입니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총탄에 의해 전남도청에서 유명을 달리한 시민군 윤상원을 모티브로 한 노래입니다. 윤상원 열사의 후배이자 들불야학 동지인 박기순 열사와의 영혼결혼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1980년을 전후한 광주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요절한 두 남녀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중복은 없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에서 불리어진다는 이유로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도 없이 김일성과 북한정권을 찬양한다고 왜곡하여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아리랑’과 ‘고향의 봄’도 우리 국민들이 불려선 안된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재석 200인 중 158인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찬성 158인 중에는 황우여·김무성 전 대표와 최경환·유승민·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하여 새누리당 의원 36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합의로 국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곡 지정을 촉구한 것은 국민의 마음 속에 이미 공식 기념곡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노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중복 논란의 뒤에 숨어 기념곡 지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적인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18일 제36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참석자 모두의 입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 살아남은 자의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김종인 대표 ‘호남민심 잡기’... 2일 전남 방문

대불산단 조선업종 현장간담회·전남도 현안 브리핑  
 충선 출마자·단체장 간담회, 민심회복 방안 등 청취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호남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일 전남을 방문하여 대불산단 기업체 방문, 충선 출마자 및 단체장 간담회 등의 행사를 잇따라 가졌다.<관련기사 7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전주)을 방문한 후 영암 삼호로 이동, 오후 4시 30분부터 이개호 도당 위원장, 이낙연 전남지사, 진영 비대위원, 이언주 조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불산단 조선 관련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수주난으로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용안정지역 지정 등의 건의사항이 반영 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후 5시 30분부터 무안 남악읍의 한 식당에서 이낙연 전남지사로부터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 등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선 출마자 및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텃밭민심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김종인 대표가 지난 2일 무안 남악의 한 식당에서 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개호 도당 위원장, 비대위원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이낙연 전남지사, 충선 출마자,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대표의 전남방문은 충선 이후 지난 25일 광주에 이어 1주일 만에 호남을 다시 찾는 것이다.

도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 지도부의 잇따른 호남방문은 충선에서 텃밭 민심이 돌아선데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지역민에게 다가서겠다는 진솔한 의지의 표현이다”고 밝혔다.

## 광주·전남 유일 당선 이개호 위원장 5·18묘역 참배

“섬 속의 섬에 있는 기분... 사·도민의 뜻, 정권교체에 힘 합쳐야”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4·13 총선 다음날인 14일 오전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4·13총선 결과 호남의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생겼고,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에서 더민주 후보로 유일하게 당선된 이 위원장(담양·함평·

영광·장성)은 이날 지지자 50여명과 함께 5.18묘지를 찾아 헌화, 분향했다.

참배에 앞서 이 위원장은 방명록에 “오월 영령 뜻을 이어 정권교체 이룩하겠습니다”고 작성했다

이 위원장은 참배 후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외롭다. 섬 속의 섬이 된 것 같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이번 총선을 통해 호남 지역의 정치 지형의 큰 변화가 생겼고, 광주·전남 사·도민의 민의는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지역민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정치적 함의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또 따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교훈을 주는 아침”이라고 말했다.

호남에서 제1당이 된 국민의당과의 향후 협력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민이 바라는 가장 큰 열망은 정권교체다. 이를 위해 어떤 길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당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정권교체는 어렵다. 정권교체를 놓쳤을 때 다시 오게 될 회초리는 몽둥이가 될 것인 만큼 양당이 화학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정말 화학적 협력을 다해야 하고, 두 당이 공동의 목표를 정권교체에 두고 정치적 힘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 SeaWeeds!**  
 청정바다가 살아 숨쉬는 천혜의 고장!  
**완도군 농수산 온라인 특산품관**  
 WANDO COUNTY  
**완도군이숍**  
 전국 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엄선하여 신선한 수산물을 산지직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 포털 사이트에서 **완도군이숍** 을 쳐보세요! **또는?** <http://www.wandoguneshop.com>  
 문의전화 : 061)550-5573~5574



김종인 비대위 대표, 이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당선인 등이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 도당,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모행사 참석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 당직자 20여명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인의 묘역을 찾아 헌화, 분향했다.

박영중 사무처장을 비롯한 도당 사무처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을 주제로 개최된 7주기 추도식을 참관했다. 이어 노 전대통령의 묘역에서 헌화, 분향하고 ‘사람사는 세상’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삶을 살아온 고인의 고귀한 뜻을 기렸다.

이와 별도로 봉하마을 입구에는 도당 당원들의 뜻을 모아 추모 현수막을 게첨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를 맞아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부터 순천 조례호 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추모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고인의 뜻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열렸다.

지상중계

국회의원 당선자 광주 워크숍 '시민에게 듣는다'

- 참석자 -

- △신선호 시민플랫폼 나들 대표
-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탁영환 전 광주교대 정치학 외래교수
- △오경미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 광주전남지회 기획이사
-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장 등 5명.



지난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 '시민에게 듣는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광은 수석대변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무능, 무기력한 야당에 실망... 정권교체 희망 보여주지 못해”  
 “선명성 있는 야당, 집권여당에 당당하게 맞서는 야당 돼달라”

더민주는 지난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당선자들은 워크숍 첫날인 12일 '광주시민에게 듣는다'는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인사 5명으로부터 4.13총선을 통해 드러난 호남 민심이 무엇인지 경청했다. 다음은 토론회 발언 내용.

◇오경미 = 호남이 회초리를 든 이유는 '친노패권'과 '호남홀대' 때문이다. 쫓겨난 '조강지처'를 대하듯 정성을 들이지 않았고, 호남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존중이 있었어도 전혀 못느꼈다. 새누리당이 호남을 대했던 수법이다.

김종인 대표의 호남에서의 한계도 이유다. 5.18의 가치를 훼손시킨 분을 대표를 내세운 것은 잘못이다. '셀프공천'도 큰 이유다. 이것은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민심이 돌아섰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더민주의 무능함이었다.

◇신선호 = 이번 총선은 무능한데 오만하기까지 한 정부여당, 호남에서는 더민주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제는 무조건 표를 주지 않겠다는 표시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경고는 수차례 있었다. 2014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무소속 당선자 29명 중 무려 15명이 호남에서 당선됐다. 공천이 잘못됐다는 증거다.

낙하산처럼 막판에 광주에 전략공천을 한 것을 보고 광주선거는 포기한 것 처럼 보였다. 낙천자들에게도 후보자 지지요청 한마디 없었다. 호남에 대한 지도부의 태도, 인식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구길용 = 호남 선거 결과는 언론에서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 무능, 무기력하면서도 기득권만 누려온 데 대한 심판이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무능, 무기력이다. 재보선에서 줄줄이 참패하고도 계파주의를 강화시키고, 정권교체의 희망과 수권정당의 비전도 없었다.

둘째, '반문재인 정서'로 나타난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심판이었다.

셋째는 김종인 대표의 한계와 안이한 전략 공천, 넷째, 호남에서의 총선 전략 실패다. 지역민은 더민주에 큰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당을 '호남 자민련'으로 공격하는 등 상대 당을 찍지 말라고 다그쳤다.

이번 선거는 바람선거가 아니라 더민주가 질 수밖에 없는 선거를 진 것이다. 호남에서 누릴 대로 누린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김동헌 = 앞선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한다. 더민주의 호남 패배는 예측했으나 광주에서의 전패는 뜻 밖이었다. 광주에 더민주 소속 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데 앞으로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광주에 얼마나 관심과 정성을 쏟을지 의문이다.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선거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탁영환 = 더민주가 제1당이 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의해 불로소득을 얻은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민주에 희망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호남은 더민주를 지지하면서 반대급부를 원한 적이 없다. 예산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정권교체의 희망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셀프 공천'에 화가 난 것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중앙위원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보고 역시 친노정당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생각했다. 수권정당이 되려면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야 한다.

- 호남 민심 회복방안은?

참석자들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호남 민심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헌 =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무조건 싸우라는 것은 아니다. 이슈가 되고 관찰시켜야 할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나 국민에게 내놓을 만한 것을 하지는 못했다. 국정원 문제, 테러방지법 문제 등이 그렇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호남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한 달에 한 두번이라도 와서 지역 공무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달라. 전북은 전북 출신인 정세균 의원이 좀 챙겨달라.

◇오경미 = 친노패권, 호남홀대론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 호남에서 의 김종인 대표의 정치적 한계는 분명하다. '가야할 때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란 이형기 시인의 '낙화'를 낭송해드

리고자 한다.

◇신선호 = 제대로 싸워달라. 무능하다는 것은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것이고 프레임 전쟁에서 계속 밀리는 것이다. 부정선거면 불복하고,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따져 재판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정쟁이라는 부정적 표현에 밀려 대중 화합하면 안된다. 명확하게 싸우면 광주민심이 돌아온다. 또 사람을 키워야 한다. 뉴DJ를 키워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비전과 자신감을 보여주지 않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스스로 나서겠느냐.

◇구길용 = 호남민심은 강한 야당이 돼서

수권정당 모습과 비전을 만들어서 정권교체를 실현해 달라는 것이다. 선거 때만 표를 달라고 하고 선거가 끝나면 전국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호남과 거리를 뒀야 한다는 논리들이 앞서는데 호남을 등지고 전국정당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탁영환 = 선거 때마다 경선 룰이 바뀌는데 좋지 않은 모습이다. 또 당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국회에 돌아가 정책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갑의 정치를 버리고 정책 정당의 색깔을 확실히 모이면 국민이 믿고 따라갈 것이다.

당선자 광주 워크숍 이모저모



더민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단을 소개하고 있다.

정세균 “정권교체 실패, 수권능력 보여주지 못한 것 반성”  
 이상호 “특별기구 호남비대위 발족, 적극 검토하겠다”

○...지난 12일 광주 당선자 워크숍에서 시민 토론자들이 제안한 당내 호남 특별기구 설치와 관련, 이상호 원내대표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지만 아이를 잘 되라고 때리면 때린 부모가 더 아프다”며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  
 이어 “호남 의원이 세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호남 특별기구 발족을 거듭 시사.

전북 출신의 정세균 의원은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수권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며 “시민 토론자들이 제안한 특별기구가 호남인들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20대 총선을 통해 6선 고지에 오른 정 의원은 이날 “특별기구가 설치되면 되는데도, 또 안된다고 해도 수도권 의원 중에도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임 의식을 갖고 호남을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

“호남민심의 회초리... 민생정당 거듭나겠다” 반성  
 전통시장 방문 등 지역 곳곳 찾아 민심 청취 행보

○...20대 총선 당선자들은 총선에서 참패를 안겨준 호남 지역민의 마음을 되찾고자 지난 12일과 13일 광주 곳곳에서 민심 행보를 계속.  
 첫날 5·18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광주정신을 되새긴 당선자들은 13일 광주를 떠날 때까지도 지역 곳곳에서 민심을 청취하는데 집중.



지난 13일 워크숍 해단식을 마친 더민주 당선자들이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보고 있다.

김경수·박용진·임종성·최운열·표창원 등 더민주 초선의원들은 이날 광주 양동시장과 송정시장을 방문, 시민들을 만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국밥집을 찾아 식사를 하기도.

○...더민주 소속 당선자들은 13일 오전 9시께 김대중센터 앞마당 계단에서 ‘당선자 워크숍’ 해단식을 갖고 거듭 호남민심에 다가서겠다고 다짐.  
 이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는 호남의 쓴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반성했다.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며 “국민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생활상 한가지라도 도움을 주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피력.

○...해단식을 마친 당선자들은 문화수도 광주를 상징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봤다.  
 문화전당 방문에는 초선 당선자들을 비롯해 송영길·추미애·김두관 등 전당대회 후보로 꼽히는 중진들과 정세균·박병석 당선자 등 국회의장 후보들이 참석.  
 손혜원 당선자는 “아시아 문화전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광주의 것도 아무것도 없다. 상설전시나 메인관은 한국이나 광주가 나와야 하는데 너무 외국의 것들과 현대미술 쪽으로 경도돼 있다”고 지적.  
 강병원 당선자 역시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정부가 더 관심을 갖고 충분히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피력.

더민주 초선 당선자들 29일 팽목항 찾는다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27명이 오는 29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 세월호 피해자 가족 및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참사해역 방문도 추진한다.

이번 방문은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서울 은평갑) 당선자의 주관으로 강병원(서울 은평을), 손혜원(서울 마포을), 기동민(서울 성북을), 김병관(성남 분당갑) 당선자 등 초선 당선자 2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당선자에 따르면 더민주 당선자들은 첫날인 29일 팽목항 대형 컨테이너에서 세월호 참사의 현황 공유를 위해 피해자 가족,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한다.

이어 다음날에는 참사해역을 방문한 뒤 정청래 의원과 초선 당선자가 참여하는 이이제이 토크쇼를 실시할 계획이다.

호남 3개 시·도당 당직자 제주에서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3개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워크숍이 26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됐다.

호남 3개 시·도당 당직자 20여명은 워크숍 첫날인 26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한 뒤 함덕코업시티호텔에서 ‘제20대 총선 평가 및 호남민심 회복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틀째인 27일에는 △한라산 등반 △선거법 및 SNS 활용 특강 △각 시·도당별로 지역현안 해결 및 시·도당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주 해군기지 및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자유시간을 가진 뒤 해산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영중 전남 사무처장을 비롯, 박근용 광주 사무처장, 김갑봉 전북 사무처장과 당직자 등 25명이 참여했다.

홍도 주민들, 이상호 원내대표 당선 축하 현수막

신안군 홍도 주민들이 지난 4일 홍도 명예주민 1호인 이상호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간

사로 활동하며 홍도에 현금지급기가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현금지급기 설치 예산을 지원한 공로로 지난해 1월 명예 홍도주민으로 위촉된 바 있다.

홍도 이장 김근영씨는 “홍도우체국내에 현금지급기가 설치돼 관광객과 주민들이 편리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준 우 원내대표에 감사드립니다”며 “당 차원에서도 도서관관 진흥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신문식 의원,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고흥 방문

신문식 의원(비례)은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지난 16일 국립소록도 병원 100주년에 즈음해 소록도 천사들의 명예군민증 수여식이 열리는 고흥문화회관을 방문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소록도 성당 김연준 프란치스코 신부와 평소 인연으로 개원 100주년을 맞이한 소록도 병원을 찾았으며, ‘할매 수녀’로 유명한 마리안느 수녀 등의 명예 고흥군민증 수여식 행사 소식을 듣고 행사장을 방문했다.

문 대표의 깜짝 방문에 박병중 고흥 군수는 문 대표에게 축사를 제안했고 문 대표도 이를 수락했다.

문 대표는 즉석 축하연설에서 “40여년 간 낯선 타국에서 봉사한 훌륭한 수녀님들을 국가가 제대로 예우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미안함을 표현했다. 문 대표는 행사가 끝난 후 김 신부와 함께 소록도로 들어갔다.

## 김성곤 의원,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법안 처리 호소



19대 국회에서 지역구 불출마 선언 후 서울 강남 갑에 출마해 낙선한 김성곤 의원(여수갑)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 출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 설

명하고 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개정안은 박람회 사후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폐지,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재단 임원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전남도지사에게 이사 추천권 부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도 사업 시행

자로 참여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지자체와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추진과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 왔다"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정훈 의원, 에너지 실증단지 입지 조속한 결정 촉구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 실증단지 입지 선정이 작년에 이어 또 연기되자 신정훈 의원이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 총선에서 광주 국회의원들이 대거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전 측의 정치권 눈치 보기와 함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에너지 실증단지 입지로 나주 혁신산단이 유력시 되고 있었는데 한전 측이 불분명한 사유로 선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실증단지는 작년 12월 준공된 나주혁신산단이 유력시 돼 왔지만 광주시가 뛰어들면서 남구

의 도시첨단산단과 경쟁이 붙고 있다.

도시첨단산단은 올해 11월착공 예정이다. 신 의원은 "작년에 완료됐어야 할 입지선정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재차 연기된 것은 광주시 쪽에 시간을 벌여주기 위한 배려 아니냐"며 조속한 입지선정을 촉구했다.

## 우윤근 의원, "협상 쉽게 뒤집는 정치 사라져야"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협상을 뒤집는 식의 정치가 계속돼 안타깝다"고 지난 19대 국회를 평가했다.

우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파행의 반복 원인에 대해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로 인해 상대를 끊임 없이 공격해야 하고, 어렵사리 야당이 타협을 이끌어 내면 '여당 2중대'

라는 비판을 듣기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갈등이 많은 나라에선 연정과 같이 여야 상생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승자독식 구조의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몸싸움 국회'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6년 만에 만들어진 3당 구도에 대해선 "의원내각제나 연정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3당이 힘을 갖지만 현재의 제약적 대통령 구조 하에선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개호 의원, "전두환 5·18 참배 추진, 알박한 노림수 아니길"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지난 16일 "내란죄로 형을 확정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감 표명 추진과 참배 추진이 국립묘지 안장 등 특혜를 계속 누리기 위한 알박한 노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이 5·18 희생자에 대한 유감

표명과 묘역 참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전두환 측에 따르면 사죄나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겠다고 한다. 유감이란 말 속에 아프게 죄송하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이는 12·12사태와 5·18로 정권을 찬탈한 쿠데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광주시민은 시민학살 범죄행위를 기억하고 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언제고 용서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 김영록 의원, "섬 지역 최초로 진도에 도시가스 공급"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현재 농식품부가 국회와 농업인을 배제하고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전면 개편대책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직불제 개편대책은 줄속 밀실정책이며, 쌀직불금

의 전면 재조정엔 자립근거를 갖춘 쌀마저 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벼 재배 면적을 3만ha를 줄이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다.

김 의원은 "WTO가 직불금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환경·생태직불금을 신설하고 타 작목에 대한 직불금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천년의 숨결! 어울림의 향연

서남해안 대표축제 2016 법성포 단오제  
6월 9일~ 12일까지 법성포 뉴타운 일원  
다양한 프로그램, '난장트기'로 서막 열어

2016 법성포 단오제가 오는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일간 “천년의 숨결, 어울림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법성포 단오제는 500여년을 이어오는 전통행사로 용왕제, 선유놀이, 숲쟁이국악경연대회, 당산제, 산신제, 무룩수룩제 등 전통 제전의를 재현하는 축제다.

또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등 민속경기와 굴비한상 밥 짓기 체험, 소금 놀이 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실상부 서남해안의 대표축제.

법성포 단오제는 법성포에 조창이 형성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성포는 백제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불교문화의 발원지이며, 단오제는 조창이 형성되면서 부터 번성되었다.

조창은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세곡을 모아 보관하고 수송하기 위해서 만든 창고를 가리킨다. 법성포에 조창을 세운 것은 고려 성종 11년(992년)이다. 이후 조선 중종7년(1512년) 때 영산포창이 폐창하고 법성창으로 옮겨졌다. 당시 법성창은 28개 고을의 조세를 관장, 개경이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창이었다.

세곡을 지키기 위해 많은 군사가 주둔했고, 조운선에 세곡을 운반할 인부와 그들을 따라온 식솔, 장사꾼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법성포에 거주하게 되면서 전통 명절인 단오가 자연스럽게 제전의 형태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성포단오제가 대중적 행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로 추정한다. 조선 중종9년(1514년)에 진성이 축조되었고 이시기에 느티나무를 심어 방풍림과 휴양지로 활용하면서 나무식재 이후 70 ~ 100년간 성장하여 무성한 숲을 형성하게 된 후로부터는 숲을 이룬 골짜기에서 비롯되어 ‘숲쟁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오늘날까지 단오제 행사를 치르고 있다.

법성포 단오제는 조창이 설치된 이래 산물이 풍성하여 이곳에 자주 드나들던 보부상과 법성포의 유수한 물산객주들이 백목전계라는 협동조직을 만들어 치렀다. 이러한 전통은 시대를 뛰어넘어 매년 음력 4월5일에 난장트기를 시작으로 단오제 행사를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법성포 단오제는 나눔과 어울림의 한마당이다.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단오제가 어울림만 있고 나눔의 장이 없는 데 비해 법성포 단오제는 나눔의 장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단오절이 되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가지고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귀천의 차이도 없이 서로 정을 나누어 먹었던 것이다.

정초에 하는 줄다리기 외에 단오절에도 줄다리기를 하였는데 법성진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힘을 겨루면서 풍년과 풍어를 기원했다.

법성포 단오제의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에서는 줄다리기가 끝나고 나면 당산나무에 줄을 감아서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였는데, 법성포에서는 줄다리기가 끝난 후 우람한 동아줄을 분리하여 선박의 닻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법성포 단오제만의 특징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력 5월 5일인 단오절에 여러 가지 민속행사를 통하여 화합과 단결을 하였으며 이러한 민족문화가 거의 사라진 지금 법성포단오제가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현재는 국악경연, 단오씨름 왕, 그네,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를 비롯한 민속행사와 산신제, 당산제, 용왕제, 선유놀이, 수룩대제 등 제전을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페스티벌 뉴스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축제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23호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법성포단오제는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전통 민속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했으며, 낭비성 축제를 지양하고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단오 보존회를 중심으로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많은 참관을 당부했다.



2년전 열린 영광 법성포 단오제에서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통 그네타기 행사가 시연되고 있다.(위)  
법성포 단오제에서 전통 농악대가 '난장트기' 공연을 하고 있다.(아래)  
외줄타기(아래)



지상중계 대불산단 현장간담회

조선 관련 기업인들, 소형 조선업 육성·금융지원 등 건의

“구조조정 본격화, 전문화·특화만이 살 길...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이개호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 2일 영암 대불산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서 조선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인은 이날 대불산단의 업종 전환 지원과 중소기업의 대출조건 완화,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건의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문제군 대상중공업 대표 = 대불산단은 조선기자재 업종으로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주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조선업계가 구조조정에 내몰리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기환 상환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 비 올 때 우산을 빼아서 서야 되겠다. 정부의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전체 근로자의 40~50%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전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숙식과 통역비 등의 추가비용을 감안할 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호황일 때는 몰라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한 최저임금을 적용, 사전 교육 등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

◇최홍식 신우산업 대표 = 조선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지원마저 끊긴다면 회생은 사실상 힘들다. 대출금 상환 연장과 이자율 인하를 건의드린다.

업종 다변화를 위해 요트 제작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배를 진수해도 테스트할 장소가 없어 침몰시킬 뻔한 적도 많다. 해양레저산업으로 바꾸고자 해도 인프라가 없다. 대불산단을 소형 선박 제조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소형선박을 시험할 ‘플로팅 도크’가 꼭 필요하다.

◇허남석 금강산전 대표 = 최근 중국을 거쳐 일본으로 넘어갔던 중소형 선박 건조 문의가 이어지는 등 중소형 조선소로 바뀔 절호의 기회다. 진수장만 있으면 1년에 20~30척의 선박 진수가 가능하다. 대불을 2만톤 이하의 중소형 조선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진수장과 플로팅 도크를 구축해달라.

◇마광식 (주)보원 대표 = 외국인투자지



대불산단 현장 간담회에서 조선관련 기업계 대표들이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역 입주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2004년 이전에는 외국인자본 1억원 이상, 투자지분 10%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했다. 지금은 지분 30% 이상에 현 임대부지의 분양가에 상응하는 외국인자본을 5년 이내에 유치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자격을 2004년 이전으로 완화해달라.

또 길이 100미터, 건조비용 100억원 이하의 소형선박 조선소로 전환할 경우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형 조선업 육성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날 기업인들의 건의에 대해 이낙연 지사는 “중소형 조선업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플로팅 도크 설치 등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불산단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과 관련,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목포와 대불산단도 당연히 포함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도 “조선업종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소형조선업으로의 특화와 전문화를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자·단체장 간담회

김종인 대표, “호남민심 얻기 위해 수권능력 보여야”

총선 출마자들, 지도부 책임론 거론 쓴소리 토해내

김종인 대표는 지난 2일 전남을 방문해 “잃어버린 전남도민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당을 이끌면서 종전 같은 불협화음을 없애고 내년 대선에서 집권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무안 남악읍의 한 식당에서 4·13 총선 전남 지역 출마자 및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남의) 패배가 누구의 책임인지 따질 것이 아니라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 당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다소 민심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너졌다”고 호남 패배의 소회를 밝혔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더민주에) 월계관을 씌워 주고, 동시에 회초리도 들었다. 호남에서는 회초리인줄 알았는데 몽둥이로 때려주셨다”고 말했다. 또 “더민주가 지역 현안에 더 매진하고 착근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전남에서 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출마자들께서 열심히 뛰었으나 본인들의 노력 부족이 아닌 뜻하지 않은 바람에 좌초 됐다”며 “출마자들이 재기하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당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성 영광군수를 특별히 언급하며 “김 군수께서 총선 직전에 입당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남 지역현안 브리핑에 앞서 “4·13 총선은 조선과 해운 등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주력 산업들의 연쇄 사양화, 갈수록 굳어지고 넓어지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 한국의 국가안보 등 급박한 대형 현안들을 완벽하게 외면한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19대 국회가 이런 절박한 국가 과제들을 20대 국회로 미루지 말고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며 미래를 대비하는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정 주요 현안으로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안정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노선 조기 확정 △여수 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 △광주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농어촌 관련 법령 제정 △영산강 수질개선·생태기능 복원 △국립 보건의료대학 설립 △서울~제주간 해저 고속철도 건설 등 8개사업을 제시하고 당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개최된 총선 출마자 및 단체장 간담회에서는 전남 총선 출마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김 대표의 사과와 위로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총선 출마자 간담회에 참석한 출마자들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고 전남 지역 총선 출마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당이 말로만 사과와 위로를 하고 호남 민심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도당위원장은 “당이 선거에 패배하면서도 반성도 없고 이기기 위한 준비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역민에 인식돼 왔다”며 “수도권 승리에 취해 호남 패배에 따른 반성을 잃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고 최근 당 내부 흐름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순천의 노관규 후보는 “지금 중앙당의 전당대회 시기가 중요하게 아니고 심각한 호남 민심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한데도 관심이 없다”며 “낙선자들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다. 중앙당이 호남 민심 대책을 강구

하지 않으면 전남도당이라도 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나타냈다.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신문식 의원은 “동요하는 당원들이 많은데 도당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중앙당에 건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해남·완도·진도의 김영록 의원은 “지방의원을 비롯한 당원 이탈 우려가 커 조직 안정화가 시급하다”며 “호남 민심을 추스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마자들의 쓴소리가 이어지자 양승조 비대위원은 “호남 지역 총선 출마자들을 모두 중앙당으로 불러 하루가 안되면 이틀, 사흘이라도 날을 새며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심층토론을 해야 한다”고 김 대표에게 건의했다.

# 한 땀 한 땀 꽃송이 수(繡)에 꽃히다



자수공예 보급에 앞장  
작가·재능기부 강사로 활동  
천연섬유 광목에 놓은 꽃자수  
자연의 편안함 담아

봄꽃들이 가득하다. 광목의 소박함에 반하고 섬세하고 화려한 자수에 반한다. 다소 투박하게 느껴지는 천연섬유 광목이지만,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수놓은 화사한 야생화 꽃송이들이 어우러져 자연의 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 폭의 동양화 같은 광목자수 침구세트다.

영광에서 나고 자란 권리당원 장미희(41)씨. 손재주가 뛰어나 천연염색 등 전통 수공예품 제작에 남다른 솜씨를 지닌 그가 광목자수에 마음을 빼앗긴지 10여년. 실 한 올 한 올에 자연의 수수함과 화사함을 담아내는 작가 이면서 수준급 장인의 경지에 달했다.

### 작품활동은 그의 일상

장씨는 지역에서 광목자수 작가활동과 재능기부 교육활동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가족 5자매가 모두 일러스트화가, 건축사, 도예가, 천연염색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그가 자수에 남다른 솜씨를 보이는 환경적 요인이다. 장씨는 5자매 중 막내. 어릴적 유달리 손재주가 좋은 어머니께서 손수 지어주신 옷을 입고 자랐다. 그러한 어머니의 손재주를 곁에 보고 자란 5자매가 모두 예술가의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한 번도 제 재주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하는 일 같이 하다보면 그 일(수공예)이 일상일 뿐입니다”

장씨에게 수공예 작품활동은 그저 일상이다. 천연염색 작품활동을 하는 가족들



광목자수 장인 장미희씨가 광목에 수놓은 야생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은 그녀의 역작 침구세트와 소품들.



과 함께 광목자수 작품에도 천연염색을 가미해 또다른 예술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 실생활에 유용한 자수공예

장씨가 손수 수를 놓아 만드는 광목자수 작품은 침대커버, 이불, 베게, 방석, 쿠션 등 침구세트를 비롯해 거튼, 카펫 등 대형작품부터 핸드폰 주머니, 선글라스 케이스, 여성용 핸드백, 어깨가방 등 소품까지 수십여 종에 이른다. 모두 섬세한 바느질과 치밀함, 정성이 가득 담긴 자수 작품들로 실생활에도 유용한 수공예품이다.

작품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완성작품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광목자수 침구세트(침대커버, 이불, 베게, 쿠션 등) 1세트를 완성하는 데는 꼬박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은 이불 한 품목 가격이 300만원~800만원으로 상당히 고가지만 혼수품으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어깨가방이 40~50만원선, 작은 핸드폰주머니도 최하 15만원

이상의 고가품들이다.

장씨는 “재료인 천연섬유 광목은 친환경소재로서 아토피치료에 효과가 있고, 침구는 건강한 숙면을 도와주는 한편, 세탁이 편해 실용적인 장점도 있다. 또 전통 한옥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공간 등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멋스러움과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재질이다”고 설명한다.

### 야생화 모티브 작품세계

장씨가 수놓는 소재는 주로 야생화다. 짙레꽃, 양귀비, 영경귀, 라일락, 능소화, 산수국, 청보리 등 산과 들에 흔한 야생화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찾는다. 광목이라는 천연섬유에는 자연의 수수함이 묻어나는 소재를 수 놓는 것이 자연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준다는 것.

그는 광목자수 동호회원들의 전시회도 매년 3~4회 참가해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동호회 ‘광목쟁이 여우비’ 회원전에 이어 이달 초 열린 보성다향축제에 작품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올 3월에는 중국 난징시에서 열린 국제수공예작품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한 옷지못할 에피소드가 있다. 그의 섬세하고도 치밀한 자수 솜씨 탓이다. 광목에 수놓은 꽃자수가 너무 섬세한 나머지 기계로 수를 놓은 걸로 오해한 국내 심사위원들이 참가작품을 제외시켜버리는 해프닝이 빚어진 것.

###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장씨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자수를 놓는다. 자수를 놓다보면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지고, 명상과 함께 마음의 평화, 힐링을 얻게된다”며 “여성들의 여가활동이나 마음의 수양에 자수만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다.

현재 여러 문화교양프로그램에 재능기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씨는 “소비자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광목자수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변중섭 편집위원



# 권노갑-한화갑 중심 구파-신파 갈등 첨예화

## 한광옥, 동교동계 새로운 리더론 대두

2001년 가을 DJ의 동교동계는 급속히 분열되고 있었다.

2002년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권노갑(85)·한광옥(74·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장) 연대의 구파와 한화갑(77·한반도평화재단 총재)을 중심으로 한 신파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 김근태, 동교동계 해체 요구

2001년 9월 11일. 전남 민주당 김근태(2011년 작고) 전 최고위원이 동교동계 해체를 요구하자 권 전 위원은 언론을 통해 “동교동은 민주당의 뿌리”라며 작심한 듯 되받아쳤다. 재야 민주화세력의 대부인 김근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일격을 당한 권 전 위원은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당당했다. 오히려 소신을 조목조목 피력했다.

“(동교동계 해체) 주장은 개인의 자유지만 해체하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 동교동은 민주당의 뿌리고, 동교동의 해체란 민주당을 해체하라는 것과 같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김 전 위원이 이번 당정개편을 ‘동교동계 잔치’라고 했는데 지나친 주장이다. 이번 인사는 민주당의 잔치다. 정치인의 기반은 당이다. (당원이란) 당의 방침이 정해지면 따르는 것이다. 자기가 잘 되려고 당에 흠집 내면 공멸한다....”

이어 “동교동계는 수십년 정치역정 속에서 확대·발전해온 것”이라면서 “뭘 해체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근태 전 최고위원은 다음날 이 발언을 전해 듣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하나회(1963년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 육사 11기생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한 조직)가 있었듯이 (동교동계가) 민주당의 하나회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동교동계를 하나회에 비유했다. 계파 존립의 명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교동계를 거듭 비판했다.

### 신파-구파 각자의 길을 가다

동교동계 해체 논란은 악화일로였고, 충돌 직전의 열차처럼 마주보고 달리는 듯했다. 정말 동교동계가 해체되든지, 김 전 위원이 엄청난 타격을 입든지, 둘 중 한 가지 결과가 예상됐다. 소장파 초선모임인 ‘새벽 21’ 소속 의원까지 김 전 위원에 가세, 본격적으로 동교동계와 비동교동 개혁·소장파의 싸움이 벌어질 판이었다.

역사의 우연인지 필연인지, 싸움은 그 정도에서 중단됐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심장부에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면서 양측은 일단 확전을 피했고, 휴전에 들어갔다. 권 전 위원은 동교동계로 쏟아지는 추가 비난을 면할 수 있었고, 김 전 위원은 당내 개혁투쟁의 리더로서 입지를 살리는 선에서 해체논란은 ‘잠복이슈’로 녹아 들어갔다.

당시 민주당에서 동교동계로 자천타천으로 분류된 의원은 20여 명. 범 동교동계로 범위를 넓히면 한광옥 전 대표를 포함, 무려 40~50명에 이르렀다. 핵심은 권 전 위원과 한 전 최고위원, 김옥두(77) 전 사무총장 등 이른바 1세대 3인방이었다. 이들은 정치노선과 대선전략 등을 두고 신·구파로 갈라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구파 쪽에는 권 전 위원, 김옥두, 이훈평,



이희호 여사가 동교동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사진=고려대 현대정치연구회 제공>



권노갑 전 고문과 한화갑 전최고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지택. 뒤쪽 건물은 김대중 도서관<사진=고려대 현대정치연구회 제공>

### 동교동 구파와 한광옥 계열은

구분조차 힘들 정도로 끈끈한 협력관계였다.

한광옥 전 대표가 여론의 지탄을 받는 권 전 위원을 대신해 동교동계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많았다.

윤철상, 조재환 전 의원 등이, 신파에는 한화갑, 문희상, 설훈, 조성준, 배기운, 배기선, 정철기(2012년 작고) 전 의원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 물론 신·구파란 언론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동교동이 신·구파로 갈라진 것은 표면적으로 2000년 8월 최고위원 경선을 거치면서였다.

### 한화갑 대권행보에 치열한 신경전

당시 권 전 위원은 독자출마가 좌절되자 이인제(67) 전 최고위원 등 친 동교동계 후보자 몇 명을 집중 지원했다. 반면 한 전 최고위원은 이를 비판하며 동교동의 새로운 리더로서 입지 다지기를 시도, 이른바 ‘양갑(兩

甲) 갈등’을 배태했다. 이들은 2001년 당정개편 과정에 다시 한 번 ‘한 전 위원의 대권행보’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고 완전히 갈라서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동교동 구파와 한광옥 계열은 구분조차 힘들 정도로 끈끈한 협력관계였다. 한 전 대표의 직계인 박양수 전 의원이 권 전 위원의 마포사무실 관리책임을 맡은 것도 두 사람의 결속을 증명했다. 이로 인해 한광옥 전 대표가 여론의 지탄을 받는 권 전 위원을 대신해 동교동계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많았다. 물론 구파의 힘이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김옥두 전 의원이 2001년 9월 7일 청와대 관저로 불려가 해양수산부장관을 권유받았으나 고사했다는 얘기는 당시 동교동 구파의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그렇지만 이들은 고립되고 있었고 신파마저 떨어져간 마당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따라서 동교동의 정의도 조금 달라졌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탄압을 함께 견뎌냈던 ‘비서’ 출신의 그룹이라는 개념에서, 독재정권 시절 재야세력과는 별도로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야당 동지들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웠다.

송승환 편집위원



## ‘오월광주’의 뜻 살려 민주·인권·정의·평화 수호 앞장

- “국민통합 첫걸음은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돌아왔다. 36년 전 5월 광주에서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장엄한 투쟁이 시작됐다. 서슬 퍼런 총칼에 맞서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한 광주 민중항쟁의 정신은 추악한 위정자들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는 그 때 흘린 시민들의 피값이며, 땀의 결실이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의가 위축되고 광주시민들이 피땀으로 지킨 대한민국은 기득권 세력의 힘과 자본에 휘둘리고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인권과 정의, 평화의 가치를 살려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우는 것이야말로 오월정신을 지키는 첩경이다. 제36주년 5·18 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시민 공모를 통해 올해 슬로건으로 채택한 ‘오월광주,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다!’도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오월광주의 기억을 잇는 첫걸음으로 올해 5·18 추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반드시 제창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찍이 지난 2013년 우리 당의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으나 정부의 거부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우리 당은 다시 지난해 강기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

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념곡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고 5·18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켜 국민통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서둘러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추념식에서 온 국민이 제창할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오월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숭고한 인권과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6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광주광역시당



###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 7주기 맞아

#### “수권정당으로 거듭나 ‘사람 사는 세상’ 구현할 터”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렀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고인의 서거 7주기를 맞아 190만 전남도민과 함께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깊이 추모하며 영면을 기원한다. 아울러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셨다. 하지만 새누리당 집권 8년동안 민주주의와 지역균형 발전은 멀어지고, 청년실업 증가, 가계부채의 천문학적 증가로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민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5·18 기념곡 지정거부, 개성공단 폐쇄 등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논쟁과 대북 강경책과 불통의 정치로 일관해왔다. 전남도당은 민생경제, 국민통합의 확고한 가치 아래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선봉에 설 것이다. 아울러 기득권을 타파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해 노 대통령이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을 약속드린다.

2016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 새누리당 전남도당, 대기업 갑질의혹 엄정수사를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관련,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들에게 특정 업체의 입찰 및 하청금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청 업체 대표 A씨가 당시 대선 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이유다. 마치 집권당의 위세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기업 임원들을 도당 사무실로 줄줄이 불러 공문을 전달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고소 내용은 충격적이다. 한마디로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중대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은 여수산단 내 일부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특정 업체에 공사 발주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 2월 여수산단 K사 부사장을 도당 사무실로 불러 ‘사회 악질 범법자 공사입찰 등 참여금지’ 제목의 공문을 전달하고 계약 해지 또는 공사 중지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Y업체도 동일한 요구를 전달받고 3~10년간 해온 공사 수주가 중단됐다. 새누리당은 공문에서 “A씨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자금 일부를 횡령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반국가적 행위자’, ‘반사회적 악질 범법자’, ‘당분간 사회적 격리대상’ 등의 극단적 표현을 열거하며 하청금지 등을 요구했다. 공사중단 압력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은 대선자금 횡령의 전모를 밝히고, 공사수주 중단 압력이 상부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도당 위원장 직권에 의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입찰에 개입해 기업을 탄압하는 권력의 횡포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 전남도당 4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전년이월금·기관지발행수입 등 6억9천557만4,430원  
지출, 정책개발비·조직활동비 등 1억6천64만912원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의 4월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9천197만3,895원과 상급당부 선거 보조금 3천809만6천원, 당비 수입 1천316만7천원, 기관지 발행사업 수입 등 6억9천557만4,43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활동비 7천139만5,500원, 정책개발비 3천782만4천원, 인건비 3천410만1,800원을 비롯, 5개 항목에 모두 1억6천64만0,70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현재 잔액은 5억3천493만3,727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도당은 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투명하고 알찬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김현진 차장 ☎061-287-1219

## ●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2016.04.01 ~ 04.30)

구분	과 목	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수입	전 년 도 이 월	591,973,895	554,807,669	7,166,226	30,000,000	
	당 비	13,167,000	13,167,000	0	0	
	기탁금(중앙당에한함)	0	0	0	0	
	후원회 기부금	0	0	0	0	
	보조금(중앙당에한함)	0	0	0	0	
	차 입 금	0	0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8,900,000	8,900,000	0	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38,096,000	0	38,096,000
			하급당부	0	0	0
		계	38,096,000	0	38,096,000	
보조금외		상급당부	35,536,565	35,536,565	0	
		하급당부	0	0	0	
계	35,536,565	35,536,565	0			
소 계	73,632,565	35,536,565	0	38,096,000		
그 밖의 수입	7,900,970	7,900,970	0	0		
합 계	695,574,430	620,312,204	7,166,226	68,096,000		
지출	선 거 비 용	0	0	0	0	
	기 본 경 비	인 건 비	인 건 비	34,101,800	33,937,800	164,000
			사무소 설치 운영비	7,167,253	5,892,753	1,274,500
		정 치 활 동 비	정 책 개 발 비	37,824,000	37,824,000	0
			조 직 활 동 비	71,395,500	4,758,000	66,637,500
			여 성 정 치 발 전 비	0	0	0
	그 밖의 경비	0	0	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0
			하급당부	0	0	0
		계	0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0	0	0
			하급당부	10,152,150	10,152,150	0
	계	10,152,150	10,152,150	0		
	소 계	10,152,150	10,152,150	0		
	합 계	160,640,703	92,564,703	0	68,076,000	
잔 액	534,933,727	527,747,501	7,166,226	20,000		

## 도의회, '임을 위한 행진곡' 동영상 상영

지난 17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우승희 도의원(영암)은 이날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정부의 제창 불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탄생과 불어린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2014년 광주시가 제작한 ‘어느 결혼식’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식 배제 논란과 함께 최근 SNS를 통해 관심을 받고 있다.

우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의 역사왜곡과 부정을 멈추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재차 촉구한다”면서 “이는 노래를 부르는 문제를 넘어 국민 편가르기 문제, 5·18 역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남도의회 의원들 5·18묘역 참배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촉구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1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광주민주묘역을 참배했다.

명현관 의장(해남)과 윤시석 부의장(장성), 정정희(함평) 의원을 비롯한 전남도의회 의원들과 의회 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은 이날 5.18 제36주기를 맞아 5.18묘역을 찾아 헌화, 분향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막고 있어 5.18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도의회는 계속 공식기념곡 지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박철홍 도의원, 위민의정 대상 수상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담양)이 지난 1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법규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위민의정 대상'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자치가 주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올바른 의회 위상을 실현하고자 전국 지방의원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은퇴도시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제안했고 이를 위한 은퇴도시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영광의 우수상을 수상했다.

5·18 제36주기

**'임을 위한 행진곡'은 5월 기념곡으로 제창되어야 한다**





**5·18 구 묘역 헌화** 5·18광주민주화운동 제36주기 기념식을 마친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비롯한 더민주 소속 의원, 20대 당선자 등이 18일 5·18 구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민주 의원, 20대 당선자,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당직자들이 5.18 36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광주공원에서 열린 2016 민주대행진에 참가해 옛 전남도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와 이개호 도당위원장, 지지자 등이 5·18 제36주기 기념식이 끝난 후 5·18묘역에서 유가족으로부터 5·18 당시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5·18 제36주기 기념식장 맨 앞줄의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에 반발, 퇴장하면서 좌석이 텅 빈 가운데 나머지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20대 국회 당선자들이 지난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당선자 워크숍 해단식을 마치고 국민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영광군 백수읍에서 열린 전남 여성 지방의원 워크숍을 마친 여성 의원들이 이개호 도당 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24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 The 24th Jeollanamdo Sports Festival for The Disabled

2016. 5. 25(수) ~ 5. 27(금)

[주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진도군, 진도군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후원] 전라남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나는 우리의 꿈, 함께하는 전남의 힘


